

연구노트

KWWDI

- 2009년 통계로 본 한국 여성의 지위
주 재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009년 통계로 본 한국 여성의 지위

주 재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본 분석은 2009년 「한국의 성 인지 통계」 보고서에서 나타난 한국여성의 삶과 지위를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하고 있다.

○ 2010년 여성인구는 24,334천명으로 전체인구의 49.8% 차지

2010년 한국여성 인구는 24,334천명으로 남성인구에 비해 206천명 작다. 여성인구는 1985년 20,205천명에서 2005년 23,655천명으로, 그리고 2010년 24,334천명 증가하여 전체인구의 49.8%를 차지한다. 여성 인구증가의 원인은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로써, 1980년 4.9%이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5년 11.2%로 증가했다¹⁾. 한편 여성인구비율은 2005년 전체인구의 50.0%로 남성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2006년 이후 남성보다 낮은 49.8%를 보인다.

〈표 1〉 인구추이

(단위 : 명, %)

연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1985	40,448,486	20,204,721	20,243,765	50.0
1995	44,608,726	22,219,402	22,389,324	49.8
2005	47,278,951	23,654,997	23,623,954	50.0
2010	48,874,539	24,334,223	24,540,316	49.8

주 : 1985, 1995, 2005년도는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2010년은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09년 합계출산율은 약 1.15명으로 전년대비 0.04명 감소

2005년(1.08명) 이후 소폭 상승 추이를 보이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

1) 「한국의 성 인지 통계」 p.92를 참고.



생아수)은 2009년 다시 감소로 돌아섬. 2009년 합계출산율은 전년대비 0.04명 하락하여 1.15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만혼화 현상으로 인해 2009년 현재 30~34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2009년 30~34세 출산율은 101.2명으로 전년대비 0.3명이 감소하고, 25~29세 연령층은 80.7명으로 1995년 175.3명 이후 감소추이를 보인다. 한편 35~39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27.4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자 수)는 106.4명으로 1995년 113.2명과 비교하여 6.8명이 감소한다. 셋째 자녀 이상 출생에서는 여전히 남아 선호 현상(2008년 셋째자녀 성비 115.8, 넷째 자녀이상 123.9)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출생성비의 차이는 점차 감소 추이를 보인다.²⁾

〈표 2〉 연령별 출산율 및 출생성비

(단위 : %, 평균 출생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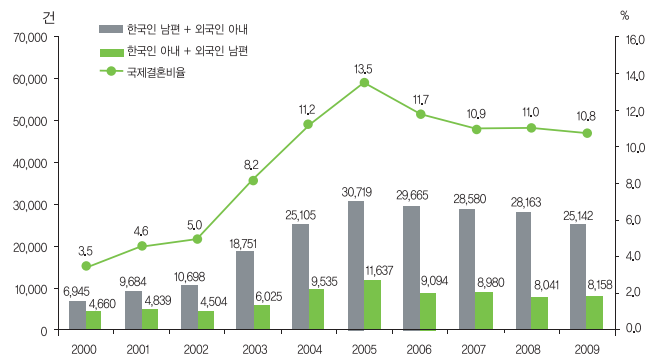
연도	연령별 출산율 (해당 연령 여성인구 천명당 총출산수)							합계출산율	출생성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90	4.2	83.2	169.4	50.5	9.6	1.5	0.2	1.57	116.5
1995	3.7	62.4	175.3	68.6	15.0	2.4	0.2	1.63	113.2
2000	2.5	38.8	149.6	83.5	17.2	2.5	0.2	1.47	110.2
2005	2.1	17.8	91.7	81.5	18.7	2.4	0.2	1.08	107.5
2008	1.7	18.2	85.6	101.5	26.5	3.2	0.2	1.19	106.4
2009	—	16.2	80.7	101.2	27.4	—	—	1.15	—

주 :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009년 총 혼인건수의 10.8%는 외국인과의 혼인

2009년 총 309,759건 중 33,300건은 외국인과의 혼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건수는 25,142건이고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혼인 건수는 8,158건으로, 전체 혼인 건수 중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8%이며 2009년 농업·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는 100명 중 35명 이상이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및 비율



2) 「한국의 성 인지 통계」 p.116을 참고.

〈표 3〉 혼인건수 변화 추이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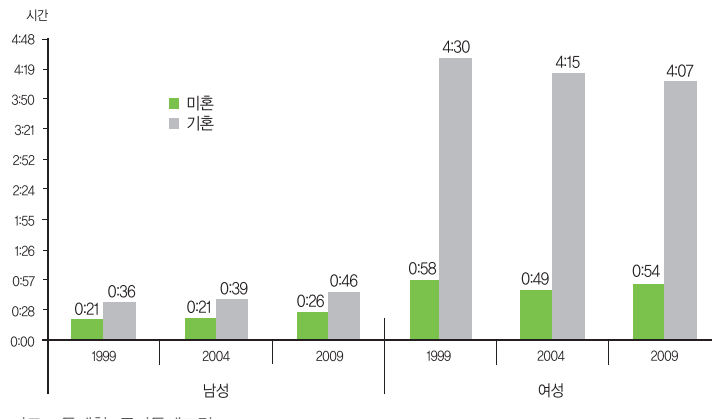
년	혼인건수	국제결혼	비율	한국남편 + 외국아내	한국아내 + 외국남편	농림어업 남편 + 외국인 아내	
						건수	농림어업직 남성의 혼인 중 외국인 아내와 혼인한 비율
2000	332,090	11,605	3.5	6,945	4,660	-	-
2005	314,304	42,356	13.5	30,719	11,637	2,883	38.0
2009	309,759	33,300	10.8	25,142	8,158	1,987	35.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2009년 기혼여성의 가사시간은 4시간 7분, 기혼남성의 가사시간은 46분.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가사시간은 4시간 7분으로 기혼남성에 비해 5배 이상 많게 나타난다. 기혼여성의 가사시간은 1999년 첫 조사 당시 4시간 30분과 비교하면 23분감소하지만 기혼남성에 비해 3시간 21분을 더 많이 한다. 미혼여성은 기혼여성에 비해 훨씬 작은 54분을 가사시간에 할당한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4분 적어진 것이지만 남성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많다. 하지만 남성의 가사시간은 미혼과 기혼 모두에서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며, 여성은 소폭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림 2〉 혼인상태별 가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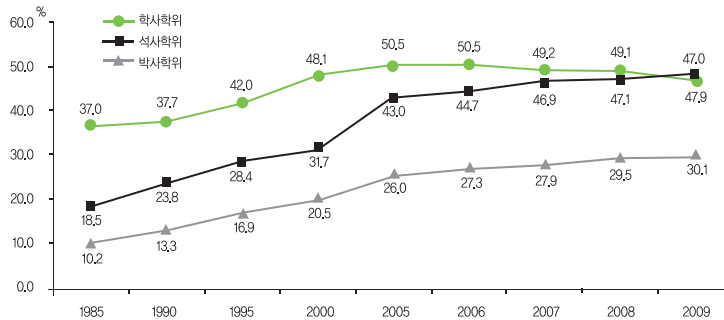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2009년 석사 졸업생의 47.9%는 여성

교육의 평등권이란 측면에서 한국여성의 교육은 크게 발전되어왔다. 1985년 학사학위자 중 여성비율은

37.0%에 불과했지만 2009년 47.0%로 10.0%p 상승했다. 그리고 동기간 석사학위자는 29.4%p, 박사학위자는 19.9%p 증가하여, 고등교육에서 여성의 약진이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박사졸업자의 경우 2009년 여성비율이 30.1%로 여전히 남성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 학위취득자 중 여성비율



주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 2009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2%로 전년대비 0.8%p 하락

〈표 4〉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 1,000명, %, %p)

연도	여성		남성		남녀차이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1980	5,412	42.8	9,019	76.4	3,607	33.6
1985	5,975	41.9	9,617	72.3	3,642	30.4
1990	7,509	47.0	11,030	74.0	3,521	27.0
1995	8,410	48.4	12,435	76.4	4,025	28.0
2000	9,101	48.8	13,034	74.4	3,933	25.6
2005	9,860	50.1	13,883	74.6	4,023	24.5
2008	10,139	50.0	14,208	73.5	4,069	23.5
2009	10,076	49.2	14,319	73.1	4,243	23.9

주 : 2000년 이후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4주 기준으로 변경되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1980년 5,412천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9년 10,076천명으로 약 2배의 규모로 성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1985년 41.9%에서 2009년 49.2%로 7.3%p다시 상승한다. 하지만 2009년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63천명 감소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50%대로 진입하지만 이후 감소추이를 보이며 2009년 전년대비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14,319천명으로 전년대비 111천명 증가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0.4%p 하락한다. 성별 차이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4,243천명으로 역대 가장 높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23.9%로 전년과 비교하여 약간 높지만 1980년 이후 그 차이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 2009년 8월 여성 임금근로자 중 44.1%는 비정규직

2009년 비정규직 여성 임금근로자는 3,073천명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난다.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지만, 2009년 비정규직 여성규모는 3,07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7천명 증가하였다. 반면 남성의 경우 2007년 (2,907천명) 이후 감소추이를 보임에 따라, 비정규직 규모는 2002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215천명 많았으나, 2009년 현재 비정규직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392천명 더 많다.

〈표 5〉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단위 : 1,000명, %)

연도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전체	여성	남성	남녀차이	전체	여성	남성	남녀차이	전체	여성	남성	남녀차이
2002	14,030	5,772	8,258	2,486	3,513	1,649	1,864	215	25.0	28.6	22.6	-6.0
2003	14,149	5,866	8,283	2,417	4,606	2,320	2,286	-34	32.6	39.5	27.6	-11.9
2004	14,584	6,096	8,489	2,393	5,394	2,662	2,732	70	37.0	43.7	32.2	-11.5
2005	14,968	6,286	8,682	2,396	5,482	2,747	2,736	-11	36.6	43.7	31.5	-12.2
2006	15,351	6,442	8,909	2,467	5,457	2,752	2,705	-47	35.5	42.7	30.4	-12.3
2007	15,882	6,647	9,235	2,588	5,703	2,796	2,907	111	35.9	42.1	31.5	-10.6
2008	16,104	6,737	9,367	2,629	5,445	2,746	2,699	-47	33.8	40.8	28.8	-12.0
2009	16,479	6,964	9,515	2,551	5,754	3,073	2,681	-392	34.9	44.1	28.2	-16.0

주 : 각 통계는 8월에 조사된 통계임.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SIS DB.

○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689천원으로 남성의 66.4% 수준

노동시장에서 한국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고통뿐 아니라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08년 여성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689천원으로 2000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지만 남성임금의 66.4% 수준에 불과하다. 교육정도별로 성별임금격차를 보면 전문대졸 여성이 남성의 72.9% 수준이며 고졸 68.9%, 대졸이상 67.8%, 중졸이하 62.9% 순으로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대졸이상의 경우 2005년 이전



의 경우 다른 교육정도에 비해 임금격차가 낮으나, 이후 성별격차가 점차 증가하여 2008년 현재는 고졸보다 더 큰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6〉 교육정도별 월평균 임금 및 임금격차

(단위 : 1,000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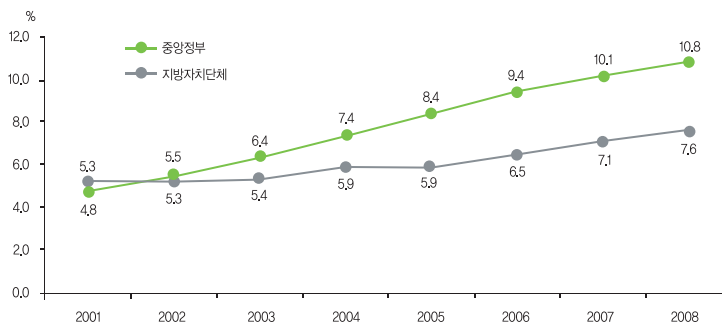
구분		전학력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1995	여성	790	647	787	901	1,269
	남성	1,361	1,153	1,246	1,308	1,770
	임금격차	58.0	56.1	63.2	68.9	71.7
2000	여성	1,167	881	1,091	1,190	1,753
	남성	1,855	1,495	1,637	1,707	2,457
	임금격차	62.9	58.9	66.6	69.7	71.3
2005	여성	1,673	1,198	1,494	1,634	2,283
	남성	2,630	1,958	2,224	2,308	3,390
	임금격차	63.6	61.2	67.2	70.8	67.3
2008	여성	1,689	1,195	1,461	1,632	2,188
	남성	2,544	1,907	2,122	2,238	3,229
	임금격차	66.4	62.7	68.9	72.9	67.8

주 : 월평균 임금 = 월급여액 + (연간특별급여액×1/12). 2)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

자료 : 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

○ 2008년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중앙정부 10.8%, 지자체 7.6%.

〈그림 4〉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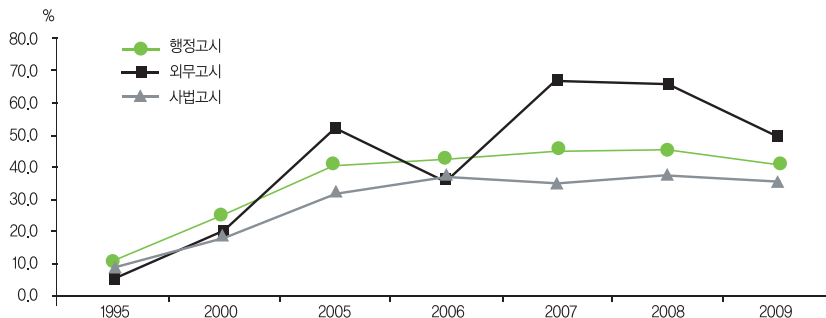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통계연보」.
중앙인사위원회, Web site.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001년 이래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08년 중앙정부의 경우 10.8%, 지자체의 경우 7.6%로 나타났다. 관리직 공무원 여성비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상승추이를 보이지만, 그 속도는 매우 낮아서 중앙정부는 2007년도에 10%로 두 자리 수에 진입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한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상승속도가 더욱 낮아서, 2001년 5.3%로 중앙정부에 비해 0.5%p 높으나, 2008년은 오히려 3.2%p 낮게 나타난다.

○ 2009년 외무고시 합격자 중 여성비율 48.8%

2009년 국가고시에서 여성합격자 비율은 외무고시가 48.8%로 가장 높고, 행정고시 41.2%, 사법고시 35.6% 순으로 나타난다. 외무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5년 52.6%로 처음으로 50%이상의 합격률을 보이고 2007년과 2008년 60% 이상의 높은 합격비율을 보인다. 하지만 2009년은 전년대비 16.9%p 하락하여 48.8%로 나타난다. 행정고시의 경우 1995년 10.4%를 보인 후 점차 증가하여 2008년 합격비율은 45.8%까지 증가하지만 2009년은 41.2%로 전년대비 4.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사법고시 여성합격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외무고시와 행정고시 보다 증가 속도가 늦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법고시 합격자 중 여성비율은 1995년 8.8%, 2000년 18.9%, 2008년 38.0%로 점차 상승하지만, 2009년은 35.6%로 전년대비 2.4%p 감소한다.

〈그림 5〉 국가고시 여성 합격비율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행정고시	10.4	25.1	41.1	42.8	45.8	45.8	41.2
외무고시	5.7	20.0	52.6	36.0	67.7	65.7	48.8
사법고시	8.8	18.9	32.3	37.7	35.0	38.0	35.6

자료 :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통계연보」,
법무부, 홈페이지.